민선4기 출범 시·도의회 의장에 듣는다

"의원 화합 급선무…대안 있는 비판 하겠다"

강 박 원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의회 제 5대 전반기 의장으로 광산구 출신의 강박원(69·민주당) 의원이 우여곡절 끝에 선출됐다. 강 의장은 19명의 시의원 중 최연장자로 함평·영암·무안 부군수와 영암군수를 역임한 행정관료 출신이다. 또 지난 4대에 이어 당선된 재선의원이기도 하다. 의장직에 올랐지만 의회 운영이 쉽지만은 않다. 의장 선거와 관련, 시의회가 두 쪽으로 나눠져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강 의장을 만나 시의회 운영 방침을 들었다.

- 의장에 당선된 소감은.

▲당선의 기쁨 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의회를 대표하는 막중한 소임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140만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광주시의회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 의장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분열양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치유책은.

▲부덕의 소치다. 허심탄회하게 만나 벽을 허물고 의원들간 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상생의 정치를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각오다.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뤄지고 나의 진정성이 전달된다면 한 마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광주시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우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싶다.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지역경제 살리기,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정상적 추진, 복지시책 추진 등에 대한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상임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의원들의 연구기능 강화에도 중점을 둘 생각이다.

상임위 중심 운영 정책대안 개발 최선

- 시의회 지도부가 집행부에 지나치게 협조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집행부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생각인지.

▲의회 본연의 사명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비판을 위한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가지고 집행기관과 머리를 맞댈 생각이다. 집행부나 의회 모두 궁극적으로는 '광주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광주의 미래와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언제든지 힘을 합치겠다.

- 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전남도와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데 이에 대해 시의회가 할 역할은.

▲혁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광주와 전남이 보여준 모습은 상생의 지혜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지역의 공동발전이라는 대명제에 충실해야 한다.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접근로 확보, 연관 산업단지의 건설, 고급 서비스 기능의 확보 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도의회가 서로 합심하겠다.

- 문화중심도시 육성 정책의 문제점은.

▲정부에서 단순히 지역단위 사업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사업을 광주를 중심으로, 광주의 발전을 위해 펼쳐 나가야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수적 우위 연연않고 소수당 의견 존중"

김 종 철 전남도의회 의장

전남도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에 김종철(51·여수1) 의원이 선출됐다. 광주·전남 최다선이자 유일한 5선 의원인 김 신임 의장은 지난 1991년 첫 당선 이래 도의회 씨프린스호·남해안오염 조사특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책대안 제시를 강조했다.

-새로 출범한 전남도의회 의정 활동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민선 제4기가 지역발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도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민생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도민의 다양한 여론을 모아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

-재적 의원 51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46명에 달해 사실상 민주당이 도의회를 독점하게 되면서 전남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90%가 넘는 데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전남도의회는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해오면서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부분도 있다. 8대 의회에서는 이런 점을 교훈삼아 소수당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 운영을 꾀하겠다. 민주당 의원들은 견제와 감시를 한층 강화하면서 정책 대안 제시에 힘쓸 것이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에 공동의 책임을 안고 있는 수레의 양 바퀴이기 때문이다.

J프로젝트·혁신도시등 효율적 추진 적극 지원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J프로젝트를 비롯한 대형 사업들 가운데 일부는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것인지.

▲전남도는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와 무안 및 해남·영암 기업도시, 나주 공동혁신도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J프로젝트), F1사업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발전을 몇 단계 앞당길 수 있는 이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일부에선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어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와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 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의원들의 전문성이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의원들의 자기 계발과 연구 활동, 연찬회 등은 물론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유급보좌관제 도입 등이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

-7대 의회의 경우 주류와 비주류간 갈등이 있었고, 이번 의장 선거 과정에서 치열한 경합으로 후유증도 예상되는데.

▲의회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가지 말이 나올 수 있다. 이번 의장 선거 결과에는 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고 의원들간 화합을 이끌어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제8대 의회에서는 주류니 비주류니 하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5선의 경험을 살려 의원들간 합의와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민선4기 지방의회 원구성 결산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27개 시·군·구의회 등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의회가 원구성을 마무리한 결과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단을 사실상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남구·순천시·나주시의회 등 상당수는 상임위원장단까지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의장의 표준 모델은 '정당인 출신 56세 2선 의원'이었다.

이번 원구성에서는 지역 최초로 여성이 의장 2명을 포함 3명이나 의장단에 선출되는 저력을 과시했다. 초선 의원들도 의장에 5명, 부의장에는 전체의 40%에 가까운 12명이나 당선됐다.

◇일당독주체제=시·도의회를 포함 광주·전남 29개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내용을 분석한 결과 의장은 28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채워졌다. 31명의 부의장(시·도의회는 2명, 시·군·구의회는 1명씩)은 민주당 25명, 우리당 4명, 무소속 2명 등이었다. 단순하게 비율로만 따지면 의장은 전체의 96.6%, 부의장은 80.6%를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한 셈이다.

이는 5·31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 의원들의 의석 점유 비율(광역의원 91.4%, 기초의원 64.3%) 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일부 신임 의장들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강화를 다짐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장도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은 물리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도가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의회에서는 다수당 의원들의 '나눠먹기식' 의장단 배분에 항의하는 소수당 의원들의 선거 불참과 등원 거부로 '반쪽 의회'로 전락하는가 하면,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민주당 의원들간 과열경쟁으로 개원 초기부터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초선 약진=의장의 경우 초선이 5명, 2선 12명, 3선 6명, 4선 5명, 5선 1명 등이었다. 최다선인 5선은 전남도의회 김종철 의장이다. 부의장은 초선 13명, 2선 12명, 3선 6명 등이었다.

무안군의회와 함평·진도군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이 모두 초선이었다. 영암군의회 의장 선거에서는 초선 비례대표인 신락현 의원이 4선과 3선 의원을 제치고 의장에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여성 의장 탄생=여성들의 활약도 눈부셨다. 광주 서구의회 나정숙 의원은 초선으로서 지역 최초의 여성 의장으로 기록됐다.

이번 원구성에선 남구의회 유정심 의장까지 여성 의장이 두 명이나 한꺼번에 탄생했다. 장흥군의회 부의장도 초선인 김화자 의원이 맡게 됐다.

의장 97% 민주당…일당독주 체제
초선의원 약진…여성의장 3명 기염
정당인 다수 '직업정치인시대' 활짝

◇지방의원도 직업 정치인시대=광주·전남 지방의회 의장단 60명의 직업을 살펴본 결과 꼭 절반인 30명의 정당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2선 이상의 의원들은 의원 자체가 직업화된 경우가 많았다.

의장의 경우 정당인이 17명, 농어업 5명, 자영업 4명, 새마을금고이사장 2명, 간호사 1명 등이었다. 부의장은 정당인이 13명, 자영업 7명, 기업체 대표 2명, 농업 4명, 상업 2명, 변호사와 건축사, 운수업 1명 등이었다.

◇40대 의장=의장의 평균 연령은 56.1세, 부의장은 52.6세였다. 의장의 경우 최연소는 보성군의회 김철우 의장으로 42세, 최고령은 광주시의회 강박원 의장으로 69세였다.

부의장은 함평군의회 이윤행 부의장이 40세로 최연소였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 외국어 학원
초중고 방학 개강반 대 모집
개강 (7월 24일)

Ⅰ. 초등 프로그램(I&T ENGLISH) : 통역 번역 영어
◉ 과목 구성 :
① 단어(속어) 암기
② 동화 암기+파닉스 (원어민 수준으로 발음교정)
③ 수준별 독해 : 기초부터 타임즈까지
④ 영어 회화(외국인)
⑤ 영작(원장 직강 - 영문 1급 번역사)
⑥ 영문법 (기초부터 토익, 토플 최정상까지)
◉ 대상 : 초등학교 4,5,6학년 (각 학년 당 8명씩만 선발)

◉ 수업 시간 : 월수금, 화목토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운영(주 3일 방학 중 1일 4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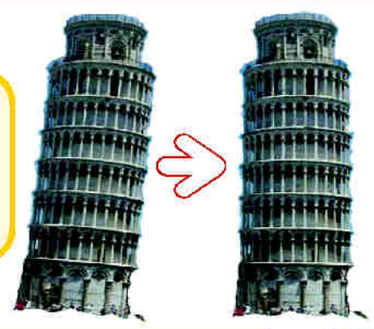
Ⅱ. 중 고등학생 프로그램(단과)
◉ 과목 구성 : 전 과목 단어(속어) 암기
① 영문법 :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② 수능 문법반(2개월), 수능 독해반(2개월)
③ 성문 기본 영어
④ 성문 종합 영어
⑤ THE TIMES, TOEIC, TOEFL
⑥ 영어 회화(외국인), CNN, SCREEN ENGLISH
⑦ 영작 & ESSAY(원장 직강 - 영문 1급 번역사)
⑧ 제2외국어
- 중국어 : 중국 연대 사범대 한국어과 졸 한족 선생님(현재 수업중)
- 일본어 : 동경 외국어대 일한 통역과 졸 선생님 지도
◉ 내용 : 학년 구분 없이 수준별 단고 ㅏ수업
◉ 수업 시간 : 월수금, 화목토로 운영 (1교시 90분 수업)

Ⅲ. 중고 특별반
① 경찰대학 진학반(육사, 공사 등) - 해당 학교 출제 경향에 맞춰 수업
② 외국 유학반 (영어권, 중국, 일본으로 구분 지도)

강의내용	TOEIC	TOEFL	THE (K.) TIMES	SCREEN ENGLISH	CNN, BBC, 회화	번역 영⇔한	vocabulary	중국어		일어
강 사	JAMES PARK	DANIEL CHO	DAVID RYOO	고권일	KAREN YOUNG	DANIEL CHO	서삼종	장 린	문 희	박영주
약 력	고대영어교육과Golden west college	전남대 졸 영문학석사 (번역 전공) 1급 번역사	전남대 졸 영문학석사 1급 번역사	전남대 졸교원 연수원 영어 담당 전)광주 문화 외국어 학원장	usc multimedia Journalism 석사	전남대 졸영문학석사 (번역 전공) 1급 번역사	한국외국어대 졸 서울 유명학원 voca(어휘) 강사	중국연대사범대 한국어과 졸업 한국번역연구원 번역담당(한족)	호남중의대 졸 중국 남개대 중문과 석사 중국거주10년	동경외국어 전문학교 일한통역과 졸 일본거주 10년
7:00-8:30	LONGMAN TOEIC	TOEFL+α			회 화		TOCA: 토익 어휘	회화(조중급)	HSK	회 화
9:00-10:30	LONGMAN TOEIC	TOEFL+α	THE TIMES	SCREEN ENGLISH	SCREEN MOVIES		TOCA : 토익 어휘	회화(고급)	회화(조중급)	회 화
10:40-12:10	Tomato TOEIC		THE K.TIMES	SCREEN MOVIES	CNN, BBC	영⇔한 번역+α	TOCA : 토익 어휘	HSK	회화(고급)	JPT
12:20-13:50					회 화					
14:00-15:30	Tomato TOEIC		THE K.TIMES	SCREEN ENGLISH	SCREEN MOVIES	영⇔한 번역+α	중고어휘총정리 1개월 마스터	회화(고급)	HSK	회 화
15:40-17:10	LONGMAN TOEIC		THE TIMES	SCREEN MOVIES	CNN, BBC	영⇔한 번역+α	중고어휘총정리 1개월 마스터	CPT	회화 (조중급)	JPT
17:20-18:50	Tomato TOEIC	TOEFL+α	THE TIMES	SCREEN ENGLISH	회 화		중고어휘총정리 1개월 마스터	회화(조중급)	회화(고급)	JLPT
19:00-20:30	LONGMAN TOEIC	TOEFL+α			CNN, BBC		TOCA : 토익 어휘			
비고	◆주의 사항 : ① 전 강좌 정원제, ② 전 강좌 테스트 후 반 편성 (지각 점수 제출 인정) ③ 월 수 금 / 화 목 토 수업 ④ 번역 중급 강의는 2개월 후 번역 실무 투입									

광주외국어학원
광주 동부 경찰서 맞은 편
☎ 431-4788
1600-4788
016-608-4788
자매 기관 : 한국 번역 연구원 호남 본부(KTI.OR.KR), 광주 번역 통역원
광주외국어학원 예술의 거리 전일빌딩 남도예술회관 동부경찰서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연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우레텍공법은 핀란드에서 개발한 국제특허공법으로 30년된 기술의 노하우 !



피사의 사탑을 똑바로 세울수 있을까요?
이젠 우레텍공법으로 가능합니다.

우레텍 공법의 특징
-지내력500%까지 증강복원
-작업공정 최단시간(수시간에서 수일)
-기존시설물 이동없이 생활불편 최소화
-물질 보증기간 10년

우레텍 공법의 적용분야
-건축주거, 업무시설분야
주택, 상가, 공동주택, 문화재, 성(城), 고건축 등 기초, 기둥, 바닥슬래브, 침하복원 및 강화

-건축산업시설분야
공장바닥, 각종 물·유류탱크, 마트, 사일로, 대형매장, 대형물류 창고 등 침하복원 및 강화

-토목시설분야
고속도로, 공항활주로, 철도, 교량, 항만, 지하철, 댐, 공공 시설물 등 침하복원 및 강화

-누수분야(공통)
지하공동구, 배관슬리브, 지하철, 터널, 댐, 농수로, 각종맨홀, 하수구 등 지수

URETEK
우레텍코리아 광주·전남지사
통진엔지니어링(주)는 기초가 튼튼한 회사입니다
통진엔지니어링(주)가 하는 일 :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일반건설업, 구조검토, 지질조사
• 자세한 안내 및 문의 : ☎ 062-571-3001, 2 • FAX : 0551 • HP : 011-604-0287 • http://www.tongjin96.co.kr